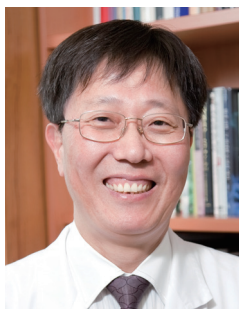


모차르트의 죽음

글 이재담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모차르트는 36세의 아까운 나이에 요절했다. 빈의 사망자 기록부에 의하면 모차르트는 1791년 12월 5일 일요일, 새벽 0시 55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인은 당시 유행하던 감기의 일종으로 급성 발열과 발진이 특징인 ‘급성 미란성 발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학적으로 정식 병명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여러 억측이 나도는 이유다.

모차르트의 사망 직후 돌았던 소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독살설이다. 생전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독을 마시게 할지 모른다고 부인에게 말했다는 점, 발병 후 2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사망했다는 점, 반복되는 구토와 악취, 온몸의 부종 등으로 미루어 추측하는 견해다.

독살설은 영화 ‘아마데우스’에도 묘사되고 있지만, 유력한 범인 후보로 빈의 궁정악장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거론된다. 그러나 살리에리가 범인이라는 설은 근거가 박약하다. 모차르트가 생전에 살리에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만, 당시 빈 음악계의 지도자였던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여서 얻을 이익은 아무 것도 없었고, 모차르트의 아들이 나중에 살리에리를 스승으로 모셨을 정도니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차르트의 사인에 관해서는 매독 때문에 당시 유행하던 수은 치료를 받고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설도 있다. 장티푸스균을 일부러 감염시켜 열을 내게 만드는 위험한 매독 치료법을 시도하다가 사망했다는 학설도 있다.

한편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필립 맥코위악 교수가 2007년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모차르트의 사인을 연구한 저술에 따르면, 모차르트의 증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발열과 온몸의 부종이었으며, 당시 빈에서 이런 병에 걸렸던 사람이 모차르트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맥코위악 교수는 모차르트의 사인으로 연쇄상구균 감염 후의 급성 신우신염이 가장 의심되며, 원인균은 전형적인 연쇄상구균이 아닌, 스트렙토코쿠스 이퀴(Streptococcus equi)라는 특수한 종류의 연쇄상구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균은 말에 가장 많은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지만 소에도 감염이 되는데, 간혹 이 균에 오염된 우유나 유제품을 통해 인간에게도 감염되어 신부전을 일으키며, 환자의 90퍼센트는 어른인데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워 50명에 한 명꼴로 사망한다고 한다(우유를 파스퇴리제이션으로 살균처리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므로 모차르트의 시대에는 이 균으로 인한 감염증이 드물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가 아는 한 이것이 가장 최근에 나온, 신뢰할 만한 의학 역사가가 주장한 모차르트 사인에 관한 학설이다.

모차르트의 장례는 사망 다음날인 12월 6일 살리에리를 포함한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부인인 콘스탄츠는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장례식 날 강제로 지인의 집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차르트의 사체가 묻힌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그의 죽음에 관한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